

“새 영역 개척으로 돌파구 찾는다”

동화나 위인전 일변도 탈피... 아동도서분야도 장르 확산 바람

아동도서의 지평이 차츰 확장되고 있다. 기존의 아동도서가 전집을 중심으로 한 동화나 위인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과학이나 환경에 관한 책들이 나름의 영역을 개척해나감으로써 그간의 고답적이고 친필일률적이었던 아동도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선보였던 아동용 과학도서나 환경도서는 어린이들로부터 ‘딱딱하다’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 사실. 이는 담고 있는 내용의 전문성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들의 사고 수준에 맞춘 다양한 기획을 출판사들이 소홀히 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효과적인 설명방식을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파악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단편적인 지식을 나열한 ‘주입식’ 기술로 어린이 독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출간되고 있는 이 방면의 책들은 예전에 비해 그 내용과 구성에 있어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점차 독자층을 넓혀가고 있다.

이야기 도입 등 참신한 구성 돋보여

어린이 과학도서중에서 눈에 띄는 것으로는 웅진출판사가 펴낸 ‘꿈과 지혜가 담긴 과학동화 시리즈’를 꼽을 수 있다. 모두 8권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전래동화나 널리 알려진 이야기들에 나타난 과학의 세계를 어린이들에게 보여준다. 예를들어 마찰력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은 재미와 함께 과학적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는데, 주인공 소년이 마찰력이 없는 세계에 찾아가 펼치는 갖가지 모험을 그리고 있다. 과학적 지식을 평면적 서술이 아닌 이야기가 있는 동화로 재구성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동화형식을 띠고 있는 어린이 과학도서로는 이밖에도 국민서관이 낸 ‘탐구동화시리즈’도 눈에 띈다.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씌어진 이 시리즈는 현역 소설가들이 직접 저자로 참가하고 있기도 해 이야기 구성력이 돋보인다.

번역서이지만 어린이들의 과학지식에 대한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것으로 ‘마이스이언스 북’ 시리즈(한길사)와 「국민학교 과학캠프」(예림당), ‘재미 있는 발견 학습’ 시리즈(오월)도 주목할 만하다. 이 책들은 한가지 주제에 대한 실험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어린이들이 직접 실험해볼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

동화나 위인전 일색이던

아동도서계에 과학이나 환경도서들이

차츰 가세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흥미있는 이야기나 만화형식을 빌어

전문지식을 쉽게 풀어냄으로써

독자층을 넓혀가고 있는 이 책들은

그러나, 국내 필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부분 번역서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써 자연스럽게 자연현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성해놓은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SF과학연구회가 펴낸 「Z광선 지구를 살린다」는 SF형식을 이용해 어린이들에게 과학상식을 심어주고 있다. 기존에 나와 있던 것으로는 계몽사의 ‘과학시리즈’(전 30권)가 체계적인 과학도서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의 환경문제에 대한 증폭된 관심과 더불어 조기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어린이 환경도서가 새로운 출판장르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과학도서에 비해 아직 그 양에서나 질에 있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다.

아동도서에 녹색붐을 일으키고 있는 환경도서로는 ‘차돌이는 환경박사’ 「생명이 들려준 이야기」(이상, 산하), 「어떡해요 지구가 아프네요」(바른사), 환경동화시리즈인 「난 느껴요 지구가 아프다는 것을」 「난 알아요 지구가 하나라는 것을」(이상, 글세계), 「위젯트」(파랑새) 등을 꼽을 수 있다. 「차돌이는 환경박사」의 경우,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쉽게 기술하면서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젯트」는 주인공이 여러곳을 여행하면서 느끼는 환경문제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만화주인공과 같은 캐릭터를 이용해 흥미롭게 읽히기도 한다.

한편 만화형식을 빌어 어린이들에게 흥미도 주면서 일정하게 요구되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책들도 부쩍 눈에 띈다.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내용을 만화를 통해 담아냄으로써 학습효과를



아동용 과학도서의 환경도서가 새로운 출판장르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교보문고 아동도서 매장에 마련된 과학도서 코너.

거두고 있는 것.

과학만화로는 「자연교과서 만화」(글수레) 「우등생 자연학습만화」(민서) 「과학생활 만화화습」(예림당) 등이 있다. 이들은 학교 교과서에 맞추어 각 학년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연관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환경만화로는 「하나뿐인 지구」(신영식) 「난 푸른 하늘이 보고 싶어요」(금왕) 등이 있는데, 이들 도서는 우선 어린이들에게 책읽기의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주지 않고 과학세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 이해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전반적인 과학지식을 담아내지 못하고 특정 부분만을 강조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진지한 독서로 이끌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전문필자 확보가 가장 큰 문제

이들 아동용 과학도서와 환경도서들은 아동도서의 새 영역을 개척해내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는 반면, 몇가지 고질적인 문제들이 앞으로의 향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우선 이전의 책들에 비해 이야기 도입 등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참신한 기획들이 돋보이고 있으나, 지나친 흥미 위주의 편집으로 교육적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자연현상이나 과학적 원리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통해 어린이 스스로 과학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기보다는 단편적인 백과사전식 나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책임있는 저자보다는 무명저자나 역자의

책들이 쉽게 눈에 띈다.

아직도 어린이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데 무리가 있는 전문용어가 남용되고 있는 점도 이들 과학도서나 환경도서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애써 손에 잡은 책을 끝까지 읽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그 기술에 있어 좀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출판사측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자신들의 기획력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전문 필자의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가장 근원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출판사의 기획에 필자의 수준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 일러스트나 특색 있는 편집으로 내용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특히 국내 필자의 책들에 공통되는 특징이라는 지적이다. 기획단계에서부터 번역서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같은 필자문제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아직 불안정한 시장성도 출판사의 보다 의욕적인 투자를 가로 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웅진출판사 아동단행본부 이미혜 대리는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영상 매체에 중독된 요즘 어린이들은 교육적 내용보다는 즉각적인 흥미 위주로 도서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환경도서는 물론 순수 창작동화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할 정도”라는 ‘극단론’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지만 명랑, 피기동화나 유머, 퀴즈책이 범람하는 작금의 아동도서의 현실을 바로잡는 데 이들 과학, 환경도서가 시의성과도 맞물려 중요한 방향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 정소연 기자